

# '반값 임대주택' 임대 희망자 모집

### 도, 올해 30동 추진 계획

### 빈집 제공자도 모집 리모델링비 천만원 지원 시세 반값 5년간 제공해야

전북도가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제공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미관저해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빈집을 살리는 동시에 반값 임대주택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불안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지역에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을 추진해 54동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3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대책으로 자리매김 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동당 지원금액과 임대대상자를 확대해 저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해 농촌 활성화 및 주거복지 실현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올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에 참여해 빈집을 리모델링 한 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기독교연합회 신년예배 5일 전주 트윈호텔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정동영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및 전북기독교연합회, 전주시기독교연합회, CBS전북방송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전북기독교연합회 2017년 신년예배 및 하례회 행사를 가졌다.

임대주택을 제공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

대상 빈집은 농어촌 지역(시,군부읍,면지역, 시부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이밖에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소요비용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신 소유주는 저소득계층 등 임주자에게 최대 5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신

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전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및 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5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으로 관할 시군과 임대자가 협의 후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

까지 모집해 선정된 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입주하게 된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방치된 빈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자원을 재활용하고, 반값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며, 소유자에게는 빈집 관리를 대신해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기초·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119만원·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더 많은 노인과 장애인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에는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돼 해당 소득구간에 있는 대상자들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액이란 신청자의 재산과 근로소득 등 환산액이 그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선정기준액 인상과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지난해 25만 6000명에서 26만명으로 4000여명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 예산도 5,908억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최대지급액을 매월 지급받고 있어, 어르신들의 생계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동일하게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는 2만48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28만4,010원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약 7% 정도 증가한 2만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록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더라도 추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하도록 안내해드리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도 장애인등록 신청시 적극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기준과 신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선정기준액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탈락자, 신규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몰라서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국내 최대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성

새만금에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 5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오는 6일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와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이 사업은 한전KPS·미래에셋 등이 새만금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를 설립, 전액 민자로 출자해 추진한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4400억원이 투자된다.

오는 4월 착공 예정이며, 2018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이다.

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되면 직간접적으로 65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생산되는 전기용량으로 보면 연간 6만2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아울러 해상풍력사업자와 협의해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을 다양한 관광 명소와 해양레저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지역은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새만금을 풍력·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

## 장애인 주차가능 표시 교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시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돼 새롭게 교체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2월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시를 집중 교체한다.

현재 주차가능 표시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의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표시 교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시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재용 기자

## 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전국 최다 선정

### 전국 33개소 중 12개소 차지... 쌀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시설·장비, 사업다각화)에서 전국 33개소 중 12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도가 경영체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완하고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대비 등을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는 농업에 '규모의 경제'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개별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 중이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는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교육·컨설팅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교육·컨설팅을 1회이상 받은 들녘경영체 중 조직 운영실태 등 전문평가단이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선정하며 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 공동육묘장, 농기계 등을 지원한다.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조직 정비·관리, 일자리 창출 등 컨설팅, 이모작 확대 및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 정비, 가공·판매, 체험·관광 연계 등을 위한 시설·장비 등이 지원된다.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은 총 4개소(전북 2, 충남 2)가 신청해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전북과 충남이 각각 1개소씩 선정됐다.

도내 들녘경영체는 2009년부터 올해

까지 총 82개소가 선정돼 운영 중이며, 공동경영면적은 1만9,298ha로 전체 벼 재배면적 12만1,026ha의 16%정도 규모이다.

또한, 공동경영에 참여하는 농가는 총 9,932호이며, 들녘경영체별 평균 공동경영면적은 235ha에 이른다.

대농·중소농 간 공동경영을 통해 공동육묘, 병해충 공동방제, 들녘별 품종 통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해 생산·유통 효율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아가고 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들녘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전북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희망 2017 나눔캠페인 기부자 명단**

▲고창군 부안면

- △백운마을 140,000
- △연기마을 110,000
- △진마마을 250,000
- △주촌마을 130,000
- △진목마을 180,000
- △사창마을 140,000

\*\*계 950,000원

▲고창군 심원면

- △고전마을 237,000
- △서전마을 327,000
- △상전마을 400,000

\*\*계 964,000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